

意識 發展의 辨證法的 過程(一)

裴相河

이는 나의 創作이 아니요, 헤-겔 哲學의 한 部分的 紹介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헤-겔은 形而上學的 觀念論의 最後의 主人公이다. 形而上學的 觀念論은 平穩한 哲學! 神經過敏의 脚 者 잇슴을 두려워 하여 미리 알려둔다.

×

헤-겔은 自己意識의 辨證法的 發展을 다음과 가튼 三 個 階段으로 난우었다. 卽

- 一, 世界享樂의 自己意識
- 二, 世界改造의 自己意識
- 三, 世界鬪爭의 自己意識

따라서 『世界享樂』은 意識發展의 根源의 基礎요, 『世界改造』는 意識發展의 中間的 媒介의 階段에 지나지 않는 것이며 『世界鬪爭』은 意識發展의 最後 終結을 뜻한다.

現下의 狀態에 빗추어 보드래도 意識은 工巧로히 헤-겔의 이른 바 『世界鬪爭』의 意識에서 止揚(終結)되어 있다. 『世界鬪爭』의 意識에서 또한 엇더한 意識階級이 다시금 延續될가 함은 現在아닌 未來의 問題이다.

本論은 그림으로 이미 自己 意識이 지내온 바의 三 個 階段을 前提삼고 헤-겔 哲學에 따라 그 사히의 過程的 必然性만을 檢討하엿스면 그만 일까한다. 따라서

主題 『意識 發展의 辨證法的 過程』이라 하엿슴은 『自己意識이 世界鬪爭에까지 到達하기 爲한 必然的 辨證法的 過程』이라 하여야 더욱 適確하다. 人生의 意識들이 엇더한 必然性에 따라 『世界鬪爭』에 까지 니르지 안흐면 안이 되엇는가?

自然性을 조차 世界鬪爭의 過中에서 自己 스사로를 發見하지 안흐면 아니되 엿는가? 더욱 簡潔하게 말하자면 現代의 意識(主觀)이 왜 世界(客觀)와 鬪爭

하지 안흐면 아니 되였는가? 그것의 必然的 根據는 무엇인가? 自然 生成의 過程은 무엇인가? -여기 關한 헤-겔의 哲學을 될 수만 잇스면 忠實히 紹介하여 볼까한다. 그럼으로 本論은 決코 한 개의 主觀的인 宣傳文도 아니요, 또는 偏見에서 生겨난 自我主張論도 아니다. 껏까지 冷靜한 客觀的 立場에서 헤-겔의 論述한 바를 거듭 論述 할 義務만을 腹行하엿스면 그만일까 한다. 떨어져서 本論의 大部分은 헤-겔의 『精神現象學』에서 展開된 바 『活動的 理性』을 紹介 함에 지나지 안는다. 그러나 이곳서 特히 注意 할 바 잇스니, 아모리 그의 立說을 될 수 잇는 대로 忠實히만 紹介할려 함에도 不拘하고 吾人은 그의 立說의 背後, 또는 根據에 潛在하는 形而上學的 觀念論의 立脚 點까지를 云云 할 何等의 必要를 느기지 안는다는 點이다. 換言하면 『世界鬪爭』·『辨證法的 過程』 등의 그의 用語와 및 그의 哲學의 基礎方法인 辨證法만은 맞치 吾人의 論述의 썬, 또는 살인 것처럼 如實히 紹介하여도 할만한 價値를 갖고 잇는 것이라 할 수 잇스나마 그러타고 그의 用語와 그의 辨證法的 方法의 根源인 그의 觀念論的 形而上學的 根據까지를 吾人의 立脚 點으로써 採用 할 何等의 義務가 업다는 말이다. 무릇 아모리 客觀的 立場에선 忠實한 紹介 文이라 할지언정 紹介하는 主觀이 잇는 以上 主觀의 根本主義까지를 枉曲 할 必要는 업기 새문이다. 하물며 헤-겔의 觀念論 썬만이 아닌 모든 觀念論들은 觀念論 最後의 主人公인 헤-겔 自身의 죽음과 함께 古典 哲學의 무덤 속에 못쳐 버린지 이미 오래임에라! 그래도 古典 哲學의 무덤 속에서 죽어버린 形而上學을 찾고 잇는 道學者가 잇다한들 이는 굶주린 者의 것헤서서 骨董品의 價値를 云云하는 閑暇로운 存在와 가티 吾人의 『삶의 哲學』에 잇서선 一顧의 問題거리도 되지 안는 것이다. 實의 삶 그 것만의 探索! 그리고 이와 가튼 哲學을 哲學하는 吾人은 새로히 살려는 사람 새로운 눈으로 보고 새로운 귀로 듯고 새로운 힘으로 把握하며 새로운 힘으로 싸흠, 싸워 새로운 憎惡로 破壞한 뒤 새로운 人類愛로 建設하려는 사람! 구타여 考古學者처럼 케케묵은 넷 觀念論을 캐여내 何等의 餘裕와 何等의 要件을 가질 必要도 업스며가 吾人의 哲學은 삶을 爲한 哲學 現실 餘裕도 업는 바이다. 그럼으로 吾人은 『죽은 哲學』 아닌 산 哲學을 엇기 爲하여 觀念論的 立場 아닌 『새로운 立場』에 서서 헤-겔의 用語와 辨證法的 方法만을 利用하엿스면 그만일 싸름이다. 換言하면 本論은 그의 體系에 잇서서 헤-겔 哲學의 模倣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色다른 根源을 갖고 있다. 副題 『헤-겔 哲學의 한 顛倒的 應用』은 이를 듯하엿다.